

오카야마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민·사업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
기간 2023년 5월 8일(월) ~

2023년 4월 20일 개정

2023년 5월 8일부터 감염증 법상 분류가 바뀝니다!

- 2023년 5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 법상의 분류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같은 5류 감염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민·사업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에 대해 일률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업자 여러분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깁니다.
- 현은 현민·사업자 여러분의 자주적인 대처 방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 알기 쉬운 정보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민 여러분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자주적으로 판단하여 실시)

➤ 마스크 착용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결정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식의 재검토 등에 대해」 (2023년 2월 10일)을 참조

➤ 손 씻기 등 손 위생, 환기 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유효함

➤ 「3가지의 밀(密)」을 회피,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

유행기 때,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은 환기가 나쁜 곳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은 혼잡한 장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는 피하는 것이 감염방지대책으로서 유효함

건강한 일상생활

➤ 적절한 운동, 균형을 유지한 식사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이나 식사 등, 적절한 생활습관을 위한 대처가 중요함

사전 준비

➤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기저질환이 있는 분 등은 2023년 5월 8일부터 「2023년 봄철 개시 접종」 백신접종을 권장

➤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를 대비

항원정성검사키트나 자택요양에 필요한 해열진통약 등을 미리 구입해 둬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당황하지 말고, 증상이나 상비약을 확인합니다.
정부가 승인한 키트를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 **양성인** 경우
증상이 가벼울 때는 자택 등에서 요양을 시작합니다.
 - **음성인** 경우
 -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 방지대책을 계속합니다.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분, 임부 등)이나, 증상이 심한 분 등,
진찰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의료기관에 사전에 연락합니다.

진찰에 관하여

- 미리 의료기관에 연락합니다.
- 불요불급(不要不急)의 진찰을 피하고, 가능한 한 평일 낮에 평소 다니는 병원 등에서 진찰 받으십시오.
- 의료기관, 약국, 고령자 시설 등에 갈 경우는 감염 방지대책을 실시합니다.
-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는

- 5월 8일 이후, 신종 코로나 환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외출 자제에 대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출을 자제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그때 다음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 주변 사람이나 사업자 분에게도 개인의 자주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 등에서는 다음 정보를 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사자의 취업제한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령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중증화 위험이 있는 고령자가 많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 또,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출 자제가 권장될 기간

- **특히 발병 후 5일 간**이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발병일을 0일째로 하여 **5일 간은 외출을 자제할 것** (이 기간에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도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또한
- 5일째에 증상이 계속 있을 때는 열이 내리고, 가래나 목 아픔 등의 **증상이 가벼워지고 24시간 정도가 경과할 때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을 배려

- 발병일을 0일째로 하여 **10일 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직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고령자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의 접촉은 자제하는 등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배려합시다.**
- 발병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기침이나 재채기 등, 증상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마스크 착용 등 기침 에티켓에 유의해 주십시오.

사업자 여러분에게: 아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적인 대처방법

- 감염증 법상 분류가 변경됨으로 인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폐지되므로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감염 방지대책은 일률적인 대응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자 여러분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계속해서 유효적인 손 씻기 등의 손 위생이나 환기 등의 효과, 실시를 위한 시간·비용 등을 고려한 비용적 효과, 다른 감염 방지대책과의 중복·대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나 의료기관·고령자 시설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이 많은 경우 등 시기나 장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의 대처 방법을 참고로 감염방지대책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고

외래대응의료기관 (발열 외래)

- ▶ 오카야마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현민이 지역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상담·진료·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외래대응의료기관(발열 외래)」를 지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

- ▶ 발열 등 몸상태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여 시판의 항원검사키드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여 둡시다. 항원검사키드를 취급하고 있는 약국 등이나 해열진통약의 선택 방법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항원검사키드 취급 약국 등
(후생노동성 HP)



해열진통약 선택 방법
(후생노동성HP)

